

# 나주시, 내달부터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나주시가 4월부터 출산을 앞둔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부 가사 돌봄은 임신부 가정으로 가사 인력을 파견, 청소·정리수납·설거지·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민선 8기 신규 시책이다.

출산 이후, 출생아에게 치중됐던 지원 정책을 임신부까지 확대해 건강한 임신 생활을 도모코자 발굴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 '6개월 이

상 거주', '고위험군·둘째아 이상·다태아·장애인' 임신부 가정에 한정했던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조건을 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

관내 모든 임신부 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착순 300명이었던 사업량 제한도 없앤다.

지원조건 폐지는 보편적 출생지원 서비스 강화 조치로 특히 첫째아 출산을 앞둔 임신부 가정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간 나주시 평균 출생아 기준 첫째아는 전체 출생아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사 돌봄은 '둘째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조건 폐지로 4월 1일부터는 첫째, 둘째아 구분 없이 모든 임신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사 돌봄은 1회 3시간·총 5회에 걸쳐 가사 전문 인력을 파견해 청소·빨래·정리수납 등 각종 집안일

들을 돕는다.

시는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비 8500만원을 추가 반영·확보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를 배려해 보건소 방문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시스템 '나주헬퍼' 웹(naju.go.kr/naju\_helper/)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발했다. /김동철 기자

## 김한중 장성군수, 농업용수 확보 총력

김한중 장성군수가 최근 장성을 밀동저수지에서 농업용수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김 군수는 앞선 26일에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장성호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연일 현장 확인에 나선 김한중 군수는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영농기 가뭄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최근 6개월간 장성군의 누적 강우량은 203mm로, 평년(338.9mm) 대비 60% 정도다.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70~99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가 적게 내리니 평균 저수율 역시 59.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영농기 가뭄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물 공급이 시급한 장성 밀동, 남면 외마, 동화면 구룡, 황룡면

와곡, 서삼면 장산저수지 5개소에 서는 물채우기를 실시 중이다. 인근에 설치된 관정 등 보조수원을 활용해 최대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서삼 임곡, 북이 신월 양수장은 물을 끌어오는 취입보 준설 공사와 정비를 추진한다. 읍면별로는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분은 새로 구입한다.

장성 구산 등 4개소는 저수지 보조수원을 개발해 물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군은 4~5월 이내로 신속하게 가뭄대책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진원면 온곡, 삼서면 보생, 삼계면 덕산지역에 새롭게 준설 중인 저수지는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

그밖에, 빗물에만 농사를 의존해야 하는 천수담 등 상시 물 부족을 겪는 논에 대해서는 국도비 포함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월까지 관정 10개소를 개발할 방침이다.

/유광중 기자

## 담양, 식중독 예방 홍보 전개

담양군이 봄철 식중독 발생이 높은 노로바이러스 등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최근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담양군 식품위생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담양군외식업지부 관련 단체 회원이식중독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의 취급요령을 홍보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와 해수 등이 채소와 과일류, 패류, 해조류 등을 오염시켜 음식으로 감염되며, 퍼프리젠스 식중독은 조리된 음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음식은 식혀서 소량씩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기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신속하게 조리 후 섭취하기 ▲육류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조리하기 등이다.

아울러 군은 4년만에 개최되는 대나무축제를 대비해 식중독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반과 신속검사차량을 운영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관내 위생업소에 방문해 식중독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식중독에 취약한 시설은 분기별로 방문해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에서는 7월까지 2023년 상반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강좌와 취미 교양강좌, 총 3개 분야 13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158명이 수강한다. /영광군 제공

## 영광군, 상반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순행

영광군 여성문화센터에서는 7월 까지 2023년 상반기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한식조리사 ▲화훼장식기능사 ▲집콕창업 자격증반과, 취미 교양강좌로 △수비학(타로/초급반) △수비학(타로/중급반) △과일 플레이팅(커피) △한입간식 만들기 △캘리그래피 △통기타 △하모니

카 △파크골프(초급반) △아로마테라피 △하루강좌(인삼꽃주만들기) 총 3개 분야 13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158명이 수강한다.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한식조리기능사, 국가자격증인 화훼장식기능사, 온라인 전자상거래 집콕창업 교육반이 자격증 취득과 취·창업에 대한 기대로 활력을 일으켜 주고 있으며,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대인관

계 속에서 나의 역할과 삶의 위치를 찾는 수비학(타로)과 붓글씨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의 캘리그래피, 연주를 통해 음악적 소양을 키우는 하모니카와 기타반 등 여성문화센터는 분주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률 기자

## 화순, 옥수수 적기에 파종·정식작업 당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옥수수 생육 초기 이상저온 및 늦서리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적기에 파종·정식할 것을 당부했다.

옥수수는 서리에 약해 한랭지나 고랭지에서 일찍 심었을 때 늦서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생육이 위축되고 영하로 떨어지면 고사할 위험이 있다.

옥수수는 보통 두둑 멀칭재배로 노지에 직파하거나 20일 내외로 육묘해 본엽이 2~3매 전개됐을 때를 적기로 정식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는 출하 시기를 앞당겨 수익성을 높이고자 터널재배 및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다.

옥수수 발아 최저온도는 30~32℃(최저 10~12℃, 최고 40℃ 내외)이고, 출아일수는 토양온도 13℃에서

는 18~20일, 15~18℃에서는 8~10일, 20℃ 이상에서는 5~6일 정도가 소요된다.

옥수수는 어린모 5엽기 경 생장점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된다. 즉 2~3엽기에 서리 피해를 받았을 경우 생장점이 땅속에 있어 식물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새로운 잎이 돌아나 다시 자라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생장점이 살아 있어도 새잎이 나오는데 짧게는 3~4일 정도가 소요되고, 생장점이 서리 피해를 받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엔 길게는 2주 정도가 늦어지게 된다.

이에, 옥수수는 그 지역의 늦서리가 내리는 날로부터 10~15일 전 발에 심는 것이 안전하며, 남부 평야지의 적정 파종 시기는 4월 상·중순이다. /남호경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 집나가면 '가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NAVER

곡성여행

검색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